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건축을 향한 그의 마지막 감동의 여정

세상을 살아가며 스쳐갔던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떠올리지 못한다. 누구든 과거에 대한 추억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다시 기억해 내기 위해선 어떤 도구나 계기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과거의 사진첩을 꺼내어 들춰보다 생각나는 사람들. 갑자기 들려온 누군가의 부음 소리에 떠오르는 얼굴들.

김현석 감독의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이를테면 과거의 추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읽힌다.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베르주락'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전체적인 틀로 보면 전형적인 로맨티시즘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정말 특별한 점은 과거의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남자의 솔직한 심정 묘사와 추억과 현재를 넘나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되었네." 이 노래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내 조국이 가르쳐 준 노래' 음반 여덟 번째 트랙에 실린 'Aspri Mera Ke Ya Mas'이다. 그리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요들을 수록한 음반으로 음악 매니아라면 누구든 한 장쯤 소장하고 있을 명반이다. 특히 이 음반에는 먼저 유명해진 노래 '기차는 8시에 떠나네'도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1968년 프랑크푸르트 오페라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케루비노 역으로 데뷔한 아그네스 발차는 강렬하고도 정열적인 연기와 노래로 유럽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카라얀과 함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한 가수였으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

‘시라노 연애조작단’ 中 아그네스 발차 ‘내 조국이 가르쳐 준 노래’

잊을 수 없는 노래

는 방식의 독특함에 있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 병훈(염태웅)은 의뢰인 상용(최다니엘)의 연애 조작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옛 연인 회중(이민정)을 카페로 불러낸다. 하지만 과거의 연인이었던 회중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병훈. 그는 그녀와 함께 프랑스 유학중 함께 들었던 노래를 들려보낸다. 병훈이 먼저 낚시 시디케이스를 선반에 던져놓자 공기 중으로 날라가는 먼지들. 그 먼지들은 노래의 전주를 타고 카페의 공간을 오가며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노래에 얽힌 병훈과 회중의 기억을 들춰보는 물론, 현재 두 사람의 복잡한 표정 위를 스치듯 지나간다. 회중은 병훈에게 다가가 묻는다. “방금 그 노래 제목 좀 알 수 있을까요?” 병훈은 모자라 얼굴을 감춘 채 대답한다. “아그네스 발차.

페라 ‘장미의 기사’에서 최연소 나이로 옥타비아 역을 노래한 가수다.

‘내 조국이 가르쳐 준 노래’ 음반에서 아그네스 발차의 음성은 그녀의 오페라 음반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화한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감정이 가득 묻어있다. 더 이상 오페라 가수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국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단 한명의 그리스 인으로서 노래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추억의 공간에서 함께 들은 음악이 있다는 것은 어쩌보면 행복한 일이다. 과거에 대한 추억의 공유가 이처럼 아름답고 편안한 한 곡의 노래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일이다. 그냥 만난 사람이 잊혀져도 노래와 함께 만난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다. 아니,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리스트〉



故 정기용의 인생 담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

광주극장 상영후 잔잔한 반향... 관객과의 대화 준비

“능력도 없고, 정책도 없고, 마인드도 없는 사람들. 지키지는 못할 망정 망치는 말야. 다시는 내가 이곳에 안온다. 미친 사람들. X새끼”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설계했던 건축물들을 하나 하나 둘러본던 노건축가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0년간 미술화관, 면사무소, 버스정류장 등 30여채를 디자인했던 ‘무주 프로젝트’의 현장을 더듬는 자리였다. ‘성장’이라는 발목에 잡혀 설계 당시의 고뇌와 의도가 강꼬리 사라진 채 상처 입은 건물들에 대해 건축가는 할말을 잃었다.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 속의 고(故) 정기용은 다큐 평론가의 표현처럼 ‘건축가가 누구에게 봉사해야하는지, 건축이 사회에 어떤 도구가 되어야하는지 보여준 건축가’였다.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가장 정확하다”는 신념에 따라 그는 건물 짓는데 시큰둥하던 동네 노인네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무주군 안성면 마을회관을 아예 공중목욕탕으로 만들었다. 그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의 도서관’ 역시 그곳의 주인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춘 프로젝트였다.

고(故) 정기용(1945~2011)의 삶과 건축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가 지난 22일 광주극장에서 개봉 후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루 한차례 상영하지

만 매회 100여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으며 광주대와 전남대 건축학과생들의 단체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고양이를 부탁해’, ‘태풍 태양’의 정재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는 대담한 관정을 받은 정씨의 마지막 1년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다큐는 정씨가 후학들을 양성하는 모습, 자신이 설계했던 옛 건축물을 돌아보는 모습, 일민미술관 초청으로 대규모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찬찬히 따라간다.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학연과 계보 등에서 철저히 마이너적인 인간’이었던 그는 다큐 속에서 건축과 건축가에 대해 끊임없이 말한다.

건축이란 ‘삶을 섬세하게 보살피고, 공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믿고, 건축이란 ‘단순히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생산하고, 모순을 지적하고, 그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는 생각 등 그의 말과 그의 작품들이 끊임 없이 보여진다.

영화에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다. 남을 위해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의 집은 없었던 이 건축가가 명륜동 다세대 주택 월셋방에 해질녘 비추는 ‘빛’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 설계한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후 ‘이제 완성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웃는 장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작·직인들과 나들이에 나선 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람, 햇



살, 나무가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장례식 조사에서 읽히는 장면 등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이 많다.

이 영화는 또 자신의 신념을 완성하기 위해 즐기게 달렸고, 이제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휴먼 다큐이기도 하다. 죽음과 ‘위엄있는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은 노건축가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공중목욕탕 앞에서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들과 함께 무심한듯 앉아있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이 건축가가 어디를 지향하고 살았는지 한번에 보여주는 가장 ‘행복한 장면’이다.

젊은 시절 정기용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영상 자료들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자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했던 건축가 송효상을 비롯해 평론가 이강용 등 건축 관련 인사들도 출연해 언급한 정기용의 건축과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코멘트는 새겨들을

부분이 많다. 촬영 중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정씨의 상태가 나빠져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감독이 제3자의 내레이션과 자막을 고려하기도 했을 정도였지만 좀 더 집중하면 그의 진심이 훨씬 더 잘 다가온다.

현재 광주는 수억원을 들인 광주폴리 등으로 어느 때보다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건축이 우리 삶과 밀착해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광주시민들,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꼭 챙겨봐야할 영화다.

건축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 건축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 인간을 제쳐둔 건축은 의미가 없다는 것 등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한다. 광주극장은 제작사측과 4월중 관객과의 대화를 갖기로 확정하고 현재 정재은 감독과 시간을 조율중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북 아트전’ 전남도립도서관

재미있는 책 전시회 ‘북 아트전’이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공공 도서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고 책 읽기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코리아 북 아트 협회’ 작가로 활동하는 31명이 참여한다.

전시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작가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작품 33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도립도서관 관계자는 “디자인이 재미있는 책들을 선보이는 북아트전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멋스러운 즐김 ‘풍류’전

소리꾼 윤진철, 내달 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소리와 그림이 어울리는 전시가 마련된다. 소리꾼 윤진철씨가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풍류(風流)’전을 연다.

윤씨는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1998년 전국대사놀이 전국대회에서 최연소 장원을 차지했으며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한 명창이다. 무형문화재 제 5호 고법 이수자로, 모 방송사의 ‘얼씨구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도 친숙하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영월 주전강, 오대산 정월사, 동강, 양양조대 등 강원도 여행에서 접했던 이야기와 풍광을 담은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소리와 그림은 법칙을 지키면서 자연 그대로를



‘동강이야기-정선가수리에서’

표현해내는 예술”이라는 그의 말처럼 작품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이 가득하다. 상업적인 목적보다 취미로 그리는 그림인데도, 작가의 치밀한 손길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